



<장미극장 2>, 135x100cm, oil on canvas, 2023

## 장미극장

- ① 드론으로 개털을 쟁취. 아래에 노란 조끼를 입은 조종자가 있다.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각자의 방법으로 개털을 줌 중
- ② 성냥이 모여 곳곳에 타고 있는 모습. 불꽃이 꺼진 초는 바니타스 회화의 대표적 정물인데 여기에 그린 성냥, 불꽃, 연기 등은 반복되는 열정(불꽃)과 그 이면의 피로감(연기)을 상징
- ③ 칼과 방패를 든 정치가. 2015년 개인전 당시 넥타이로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든 솜으로 가득 찬 칼과 방패를 들고 있는 양복무리들
- ④ 개 등에 탄 황제. 자크루이 다비드가 그린 <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>의 포즈처럼 개 등에 탄 권력자의 모습/ 옷은 그 당시 대관식 의상을 참조
- ⑤ 싸움에 저서 꽃얼굴이 다 뜯긴 남자와 빠르게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\_정치가의 눈알은 빠져서 접시 위에.
- ⑥ 오이가족. 노령화 사회로 오이지가 되어 아기가 된 노인 부부와 노인을 간호하는 여자, 금고에 개털을 가득 모으는 남자, 용돈을 요구하는 아들
- ⑦ 마술봉을 들고 인간세계를 바라보는 말 없는 개. 원화에서는 하나님의 자리. 건초수레→개털수레
- ⑧ 장미와 통닭 생일 케이크. '장미와 통닭'은 김염지의 소설 <주말, 출근, 산책: 어둠과 비> 에 나오는 말로 잊었던 작가의 꿈과 현실을 상징한다. 현실 앞에서 작가의 꿈들은 외면되는데 그것은 매년 돌아오는 생일처럼 반복된다.
- ⑨ 리어카 집을 끄는 사람들. 집은 굴러간다 각자의 식구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는 가장들. 다들 비슷한 방향의 어디론가 향하고 있음.
- ⑩ 계란 머리 직장인. 계란 바구니에서 우르르 몰려나온 점심시간의 직장인들 개털을 줌기 위해 뛰어나옴. 파리목숨, 나약한 존재
- ⑪ 소시지 군인들. 황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레를 끄는 군인들. 동료 군인 하나는 바퀴에 깔려있다.
- ⑫ 해녀가 된 자화상. 대표적 여자 채집자인 해녀로 작가 자신을 설정했다. 이 그림의 보고자로서 작가가 낚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여준다.
- ⑬ 구부러진 연필 학생들. 몬스터 카페인 음료를 먹으며 공부하는 중. 입시경쟁으로 뾰족하고 딱딱하기를 포기한 지친 청소년



<건초수레> Hieronymus Bosch, 1516